

- 본문 : 에베소서 6장 4절
- 제목 : “성경이 말하는 자녀 양육”

설교자 : 조경래 담임목사

· 본문 읽기

4. 또 아버지야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 마음의 문을 열며

기독교 신앙 교육은 무엇보다 인간론에서부터 시작된다. 기독교의 인간론은 ‘인간은 태어나면서부터 부패한 본성을 가진 죄인이라’고 정리하는 인죄론이다. 그래서 더욱 성경은 자녀양육의 목표를 ‘부모에게 순종하는 법’, ‘하나님에게 순종하는 법’, 그리고 ‘사랑을 받고 나누는 법’을 통해서 ‘성숙한 인격을 형성’하는데 두고 있다. 우리는 부모로서 얼마나 말씀 중심의 자녀 양육을 해 왔는지, 기독교 신앙교육의 목표를 가지고 자녀들의 삶을 돌아볼 때 당신의 자녀양육은 후회되지 않는가 함께 생각해 보라.

· 말씀의 씨를 뿌리며

1. 성경본문은 아버지가 자녀에게 하지 말아야 할 것과 해야 할 것을 무엇이라고 하는가? (4절)
2.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라는 말씀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가? 왜 그렇게 해야 하는가?
그리고 부모의 어떤 모습이 자녀들을 노엽게 만드는 것인가?
3. 하나님의 말씀의 성경적인 사고 안에서 자녀를 양육할 때 성경은 부모 순종, 하나님 순종, 삶의 목표가 되는 사랑을 배우면서 성숙한 인격을 형성하는 것이 자녀양육의 목표라고 할 수 있다. 지금까지 자녀를 양육하면서 당신은 어떤 목표로 자녀를 양육했는가?
4. 핵가족이 주를 이루고 있는 오늘날에는 그리스도인들조차 가정에서 등한히 하기 쉬운 것이 자녀들에게 ‘주의 교훈을 가르치고 바르게 훈계하는 것’이다. 왜 그렇다고 생각하는가?
5. 자녀를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기 위해서는 부모의 모범, 자녀와의 진지한 대화, 그리고 생활에서의 실제적인 점검이 매우 중요하다. 이 세 가지 면에서 지금까지 자녀 양육을 어떻게 했는지 나누어보자.

· 삶의 열매를 거두며

최선을 다해 기른 자녀들에게도 방황의 시간이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방황 끝에 돌아올 수 있는 항구가 되어주는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부모로서 포기하지 않고 기도의 등대를 밝히고 있어야 하고, 내가 주님 앞에서 교훈과 훈계로 양육 받는 모습을 보여줄 수 있어야 한다. 방황하고 있는 자녀들이 다시 돌아오고자 할 때 가정에 대한 “근본적인 신뢰”가 우리 가정에 있는가? 우리 부부는 또는 우리 가정은 다시 돌아올 자녀를 넓은 품으로 품어줄 수 있는 “돌아올 수 있는 항구”가 되도록 부모로서 마음을 다시 정리하고 기도를 요청하자.

· 말씀기도제목

1. 복음과 그 축복이 자녀들에게 전해지도록 “노엽게 하지 않게” 하시고, 자녀들의 마음에 남은 상처를 볼 때마다 “회개하는 부모”가 되게 하옵소서.
2. 하나님이 주신 자녀들을 말씀의 목표대로 양육할 때 부모와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할 줄 아는 “자녀의 성숙한 인격”을 주옵소서.
3. 송원교회가 “기도하는 어머니의 자식은 결코 망하지 않는다!”는 확신으로 기도할 때, 방황하는 자녀들이 “돌아올 수 있는 항구”가 되게 하옵소서.